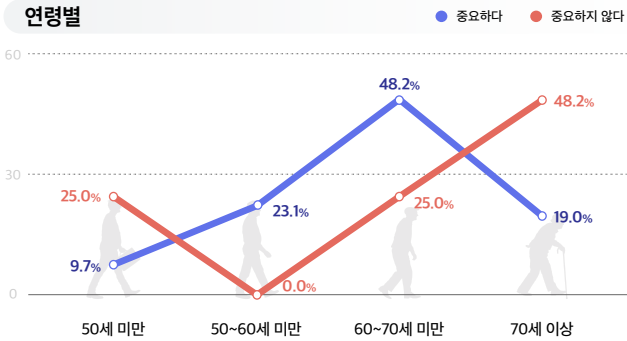


농촌지역의 정신건강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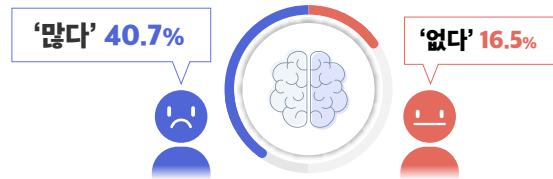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3년 5월 3일(목) ~ 5월 11일(목)
조사방식 : 온라인조사
조사대상 : 현저통신원(연구원 조사패널)

정신건강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에게 ‘중요하다’ 98.7%



▶ 아직 활동이 어렵지 않은 70세 미만까지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70세 이상은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낮음.

■ 농촌지역에서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정신질환 관련 동의율(농업인과 일반국민 비교)

* 일반국민 조사결과는 '2022년 국민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국립정신건강센터)'를 활용함.

■ 이해도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나의 가족·친구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수용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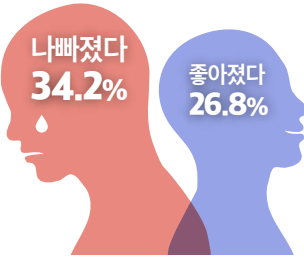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친구로 지내며 친목모임을 가질 수 있다

■ 부정적 인식

우울증에 걸리느 것은 본인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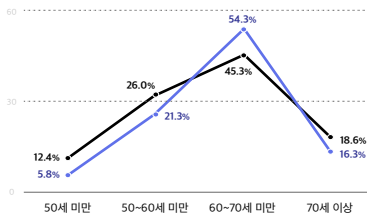
지난 1년 대비 최근의 정신건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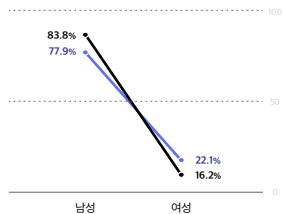
▶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시국 영향이 높은 것으로 보임. 2020년 '코로나에 의한 인식 변화 조사(2차)*'에 따르면 조사시점 기준 과거 2주 동안 '흥미와 재미 상실, 외로움, 초조/불안, 우울감/절망감, 걱정 등'의 순으로 정신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밝혔음

* 김지범 외. (2020). 코로나 위기와 가치관 변화. 국회미래연구원.

연령별



성별



‘영농활동 때문’이라고 응답한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재정 문제(영농 자금 확보, 자금 상환, 수입 감소, 생산비 증가 등) 때문이다	165	74.0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여겨서이다(예: 농업 정책 등이 자주 변해서, 수입이 적어서 등)	115	51.6
영농활동으로 인해 질병이나 질환에 걸려 몸이 아프고 불편해서(관절병, 고혈압, 피부병 등)	100	44.8
노동 조건이 좋지 않다(예: 오랜 시간 일해야 하거나, 일이 힘들어서)	98	43.9
날씨 때문에 작황 부진했거나 일하기 힘들었다	85	38.1
고립감, 고독감을 느껴서이다(예: 혼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4	19.7
지역(우리 동네) 경기가 좋지 않아서이다	16	7.2
기타(고민 중임)	6	2.7
합계	629	282.1



재정문제 때문이다 74.0%

영농 자금 확보, 자금 상환, 수입 감소, 생산비 증가 등을 가장 많이 꼽았음.

▶ 실제로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 의식조사' 결과 중 '농업경영 위험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는 점과 통계청(KOSIS) '농가판매가격지수'가 2021년 128.7에서 2022년 125.7로 하락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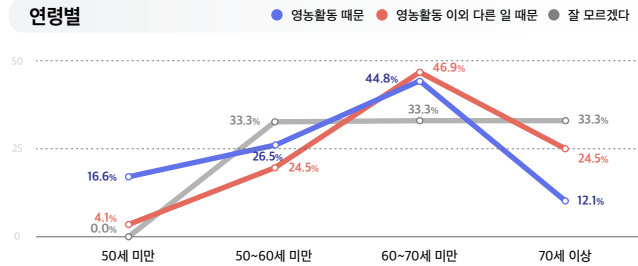
* 김동훈 외. (2022). 농업·농촌에 대한 2022년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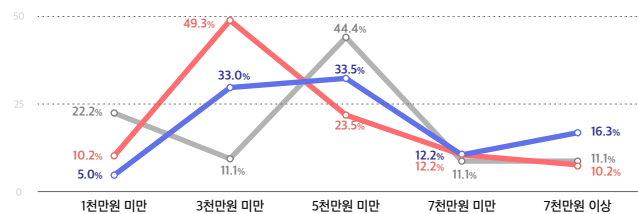
구분	2021년	2022년
농가판매가격지수	128.7	125.7
농가교역조건지수	115.9	100.4
농가구입가격지수	111.1	125.2

지난 1년 대비 최근의 정신건강이 나빠진 이유로

■ ‘영농활동 때문’이라는 응답은 60세 미만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영농활동 이외의 다른 일 때문’이라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연평균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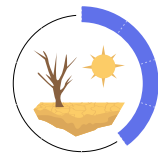
▶ 또한, 연평균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인 응답자들은 ‘영농활동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7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영농활동 이외의 다른 일 때문’이라고 응답함.



노동 조건이 좋지 않다 43.9%

이같은 결과는 '농업부문 근로환경 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연구 중 영농활동 중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이나 자제와 관련해 농업 부문 종사자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여건에 있다고 언급함.

* 허정희. (2022). 농업부문 근로환경 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고찰.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9권 제3호



날씨 때문에 작황 부진으로 일하기 힘들었다 38.1%

이 같은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폭염, 한파, 홍수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진다'는 의견에 2.76점(4점 만점)을 기록해 전체 평균(2.69)보다 높게 나타남.

* 김홍주 외. (2022). 기후위기와 농민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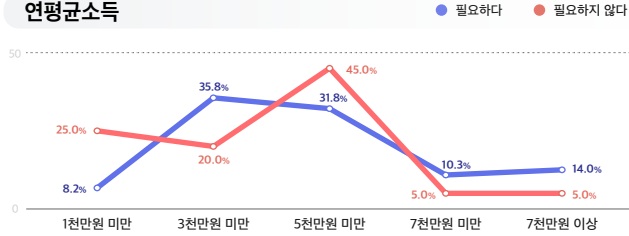
고립감, 고독감을 느껴서이다 19.7%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 위기와 가치관 변화'(김지범, 2020년,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에서 코로나19 사태 시점 시 '흥미와 재미 상실, 외로움, 초조/불안, 우울감/절망감, 걱정 등'을 겪는 정도도 적지 않았음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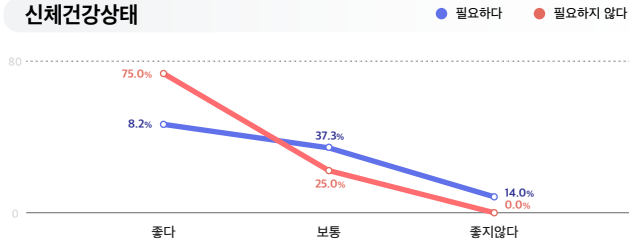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 연평균소득 7천만 원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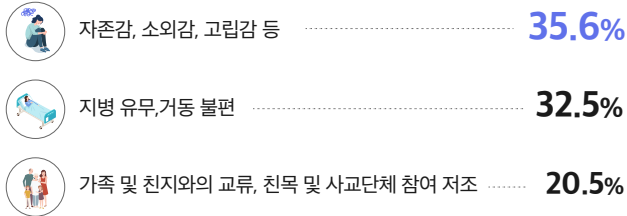
연평균소득



신체건강상태



정신건강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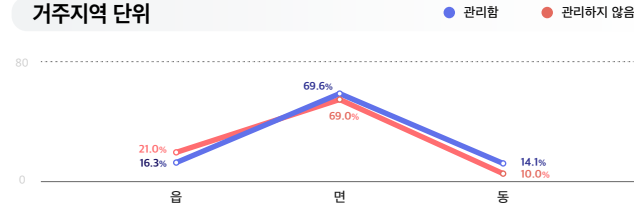
정신건강 관리 여부

*스스로 관리 52.9%
그 외(가족, 친구, 의사 등)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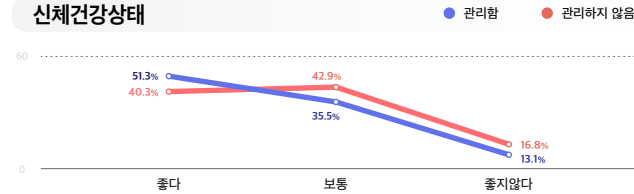
관리하고 있다
67.6%

관리하지 않는다
32.0%

거주지역 단위



신체건강상태



특히,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김남훈 외, 2020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에서 농촌지역은 지리적 불리함과 열악한 돌봄 시설, 부족한 인적 자원을 극복하고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촌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농촌 돌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함. 이와 같은 내용이라면 농촌 주민 중에서도 **가족 및 친지, 친구 및 지인 등의 친밀함이 높은 사회관계 망을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농업인 사회적 관계망 친밀도 순



가족 및 친지



친구 및 지인



마을주민
및 사회단체 등



사회복지사,
공무원, 의사 등

정신질환에 대한 의견 형성에 영향을 준 경로 순



친구관계 및 경험 72.3%



친구 및 친지 71.7%



초·중·고 학교 교육 5.2%

